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본격 운영에 나선 지역들

세종시 건설교통국 교통과
2024.7.1, 7.8.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2024.8.5.



경남형 DRT 버스

출처: 세종시. (2024). '가까운 정류장 연결' 이음버스 8일
본격 운영. 7월 8일 보도자료.



경남형 DRT 버스

출처: 경상남도. (2024). 부르면 온다 '경남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플랫폼' 구축, 도민 이동편의 증진. 8월 5일
보도자료.

세종시,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본격 운영

세종시 도심형 수요응답버스 '이음버스'가 7월 첫 운행을 시작하였다. 시는 2021년 규제 특례 실증사업에 따라 운영되던 도심형 수요응답교통수단(Demand Responsive Transit: DRT)을 정규사업으로 전환, 이음버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도심형 수요응답버스의 고유 브랜드로 선보이는 도심형 DRT 이음버스에는 '이동에 응답하는 버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음버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승하차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하고 합승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음버스는 시 통합교통 플랫폼 '이음' 앱을 통해 호출·결제할 수 있고, 요금은 성인 기준 1,800원이다. 호출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도시 전 생활권에 30대를 투입해 운행한다.

경상남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플랫폼 구축 및 시·군 배포 추진

경상남도가 교통취약지역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경남형 DRT 플랫폼'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 경남형 DRT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거제시 거제면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운영성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말까지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형 DRT 플랫폼은 시·군별 지역 특성과 주민 이용 패턴 등을 반영해 지역맞춤형 콜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승강장 호출 벨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도는 최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 시·군이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희망하는 시·군에 플랫폼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남형 DRT 플랫폼 사업 설명회를 8월 개최하고, 주요 모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